



건강과 수형

눈 기름의 중요성

안구건조증 생기는 이유는 눈 기름샘 때문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안구 건조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눈이 건조해지면 윤활제 역할을 하는 눈물이 부족하게 되고 뻑뻑하게 된다.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눈이 따갑고 아픈 사람들도 있다. 이 또한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다. 눈에서 눈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눈물은 눈을 감박거릴 때 원활하게 도와주는 윤활제 역할도 하고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눈 기름샘의 존재다. 이 기름샘의 정확한 명칭은 '마이봄샘' 또는 '마이봄선'이라고

하는데 눈알과 눈꺼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준다. 마이봄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성의 분비물은 안구나 눈꺼풀의 운동을 매끄럽게 하고, 속눈썹을 축축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이 분비물은 눈 표면을 코팅시켜 눈의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마이봄샘 즉, 눈 기름샘 분비선이 막히게 되면 기름이 제때 배출되지 않고 그로 인해 눈의 수분이 증발해 안구 건조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눈 기름샘에서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 눈의 표면이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민감해질 수 있다. 또한 분비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눈이 간지러우면 눈 주위를 자주 비비게 되고, 잠시나마 간지러움이 없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면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눈꺼풀 주위가 부을 수도 있으므로 안구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야가 흐려 보이거나 눈에 압박감과 분비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눈 기름샘이 막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노폐물이 기름샘 출구에 축적되면 막힐 수 있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눈꺼풀 주위에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 조직이 부종을 유발하여 기름샘 출구를 막을 수 있다. 요즘처럼 추워지는 환경 속에서 난방기를 사용하면 더욱 건조해지는데 이는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눈 기름샘의 기름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름샘 주위에 노폐물이 쉽게 쌓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조직의 변화로 인해 기름샘의 분비 능력이 감소되어 자연스럽게 막힐 수 있다. 이외에도 체질적, 유전적으로 노폐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등 질환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습관 등으로 막힐 수 있다.

그러면, 마이봄선 청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기름샘 녹이기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온찜질용 수건을 이용하여 5~10분 정도 온찜질을 한다.

둘째, 열을 받은 눈꺼풀 마사지하기

면봉으로 위 눈꺼풀은 아래로, 아래 눈꺼풀은 위로 쓸어준다. 눈알을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속눈썹이 나 있는 눈꺼풀의 가장자리에서 기름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셋째, 눈 기름 제거하기

기름이 나오면 인공눈물을 묻힌 면봉으로 살살 닦아준다. 만약 기름이 잘 안나오고 혼자서 기름샘을 청소하기가 어렵다면 근처 안과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은우 기자



▲ 정상적인 눈기름



▲ 막힌 눈 기름

자연스럽게 막힐 수 있다. 이외에도 체질적, 유전적으로 노폐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등 질환과 스트레스, 불규칙한 습관 등

제1편 내용 요약

-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 엄마, 영모님
- 박태선 영모님과 조희성 구세주님
- 금목합운(金木合運)하여 지상선국(地上仙國)창건이라

四. 朴泰善 靈母님과 曹熙星 救世主님 박태선 영모 조희성 구세주

박태선님은 당신을 엄마라고 공식 지칭함

박태선 영모님은 구세주 정도령님의 엄마로서의 사명을 성공리에 완수하셨다. 당신이 입버릇처럼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던 해산의 수고 끝에 육동자 구세주를 낳으신 것이다.

이후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제단 명칭을 지어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은 영적인 아들인 구세주 조희성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영모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제 이 할미가 일을 다해서 모든 살림을 며느리에게 다 맡기려고 해”

“의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향하여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1982. 6. 21. 신앙신보)” “그 속에 죄의 뿌리까지 뽑아주는 이 긴자가 나왔다(1982. 12. 2. 신앙신보)”

“이기는 자를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키워 모처에 모셔왔다(1982. 12. 28. 축복일)”

“2년 전까지 이긴자의 정체를 숨겨왔다. 발표할 때까지는 누구도 눈치 못채게 가리고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1982. 2. 22. 신앙신보)”

영적 엄마 되시는 박태선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키운 아들 구세주님의 출현을 만천하에 알리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을 누구 한사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에는 당신이 낳은 아들 구세주님이 조희성님임을 직접 말씀하시게 된다. 다음의 박태선 영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의 보파리를 선사하겠다. 소사에서 그때 두 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굉장히 쎈 좋아야. 실력과 능력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오는 맨 꼬리를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내 가치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조희성이 그게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는 세계적인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르치는데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이 보다 굉장히 쎈 것을 한다 이거야.”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3회》

위의 이 말씀은 노골적으로 당신께서 낳아 키운 구세주가 조희성님임을 강하게 증거하신 말씀이다. 맨 꼬리라고 지칭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인 구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키운 구세주 조희성님을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자랑하신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님은 삼수의 하나님 중 막내인 맨꼬리의 '살려주는 신인 두 번째 아담'인 구세주로 출현하신 것이다(고전 15장 45절).

五. 金木合運하여 地上仙國 創建이라 금목합운 지상선국 창건

金木合運東西로서 地上仙國 創建이라

금목합운동서 지상선국 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無事彈琴千年歲라.

선출기인후강주 무사탄금천년세

『勝運論 (승운론)』

금운되시는 조희성 주님과 목운 되시는 박태선 영모님 두 분의 운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지상선국을 건설하시는데 먼저 오신 박태선 영모님과 후에 오신 조희성 구세주의 금슬이 천만 년을 아무 일 없이 이어지는구나.

해설 : 해산의 수고 끝에 구세주를 낳아 키우신 박태선 영모님과 그분을 통해 태어나신 조희성 구세주님, 두 분이 합일(合→)되어 구세주 조희성님의 주도에 완성의 역사를 마치신다. 이와 같이 기묘(奇妙)하고도 오묘(奧妙)한 천기(天機)인 구세주 출현과정인 천리(天理)의 역사를 누가 알 수 있었는가? 하늘이 감추고 또 꼬비리에 감춘 천기 중의 천기인 것이니 만일 구세주가 어떤 식으로 출현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면 하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지도 모른다.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구세주 출현의 예언을 누가 알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본 고장인 유대민족은 알 수 있을까? 또 ‘소 울음 소리 나는 곳’에 대한 해석도 누가 알 수가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은 극비의 하늘의 천기는 하나님의 직계 천손민족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단군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 중의 한 지파인 ‘단지파’이고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극비 작전 속에 극동 한반도로 이동시켜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해

특별히 숨겨 키운 천손민족인 단군민족이다. 이 천손민족인 단군민족 중에서 목운(木運)되시는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金運)되시는 조희성 구세주님을 출현시켜 인류 구원의 대 역사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분들의 존재를 아는 분이 복된 자이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분골쇄신 될지라도 천리 길도 멀다 말고 열심히 그 분을 따라가야 한다.

東西金木相合之年 地上仙國福地로서

동서금목상합지년 지상선국복지

開國以來初有之時 前無後之長

개국 이래 초유지시 전무후지장

春世 天上玉京弩弓火를 甘露水에

춘세 천상옥경노궁화 감로수

불을켜서 弓乙仙人 相逢하여 不死

궁을선인 상봉 불사

消息 다시듣고 風浪波濤 빠진백성

소식 풍랑파도

生命線路전질적에 粉骨碎身될지라도

생명선로 분골쇄신

不遠千里멀다마소

불원천리 『桃符神人 (도부신인)』

동방을 상징하는 3·8 목운 박태선 영모님과 서방을 상징하는 4·9 금운의 조희성 정도령님의 운이 합하여져서 이 세상에 지상선국이 건설되는데 천지가 개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전무후무한 불로장생의 세계로다. 하늘나라의 서울 옥경에서는 활의 불을 감람나무 기름으로 불을 붙여 궁을 선인 즉 정도령을 만나서 불사영생하는 소식을 다시 들으며 풍랑파도에서 빠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생명선으로 건질적에 분골쇄신 될지라도 천리길도 멀다 여기지 말고 달려가서 구원 받으시오.

해설 : 목운인 박태선 영모님과 금운인 조희성 구세주님이 합작하여 지상선국을 건설할 때는 전무후무한 불로장생의 세계가 열리는 때이니 천리길이 멀다 말고 열심히 달려가서 영생의 구원을 받으라고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전도관의 박태선 영모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 구세주님은 밀접한 모자지간으로 맺어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성공리에 끝맺음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

1면에 이어

19세기 중엽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 수운 선생이 『사람이 곧 한울님이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인간평등을 내세운 그 무렵 미국에서는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운 영국에서는 기존의 종교(천주교, 개신교 등등)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또 산업혁명이 진행됨에도 빈부 격차가 심화되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서 천국행보다는 지금(now), 여기(there)를 중시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1869년 종교기관과 자선기관들이 힘을 합쳐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설립하였고 이후 ‘빈곤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웃을(隣) 지키는(保) 집(館)’이라는 의미의 소위 인보관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이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자선활동이 미미하였으나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빈민을 구제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설득하여 더욱 발전하였으며 이에 편승하여 처음으로 사회화이라는 학문적 분위기가 대두되어 중세의 신(神)중심의 분위기에서 인간중심으로의 르네상스 이후 제2의 르네상스를 태동시킨 것이 바로 사회학의 태동입니다. 기존의 정치, 종교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적인 학자, 종교인들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뒷받침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두레, 향약(향촌 규약), 계모임, 품앗이 등이 있어서 지역 주민 간의 상부상조 협동조직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하에 1983년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답변 4: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최근 발명된 인공지능(AI)과 공생하고 또 공동 진화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46억 년 태양계 역사 속에 38억 년의 지구 역사상 5번째 멸종을 겪었으며 6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인간이 하기에 따라 지구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 인류가 고통을 겪었는데 그 코로나 백신을 누가 만들었나요? 신(예수, 부처, 알라 등)이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나요?

그래서 신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인간이 곧 한울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세뇌시키고 감언이설과 현란한 이론으로 신도들을 속여 온 결과 종교 분쟁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 중동을 보세요. 또 필자는 2001년 9.11테러 사건 당시 인천공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무 중 수십 명의 직원들이 TV 앞에 모여 웅성거리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을 강타한 그 사건의 배후에는 알카에다 테러범 수괴 빈 라덴이 19명의 부하들을 세뇌시켜 ‘너희가 순교

하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너희들을 반겨줄 것이며 영원한 영생의 사후를 보장한다’는 꼬드김에 세뇌당하여 자지른 사건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뇌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데 그 뇌는 한 번 세뇌 당하면 일종의 학습 효과지만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깊이 현혹되어 좀처럼 그 현혹된 망상(천국 간다고 믿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필자는 지난 정부(2017년) 당시 포항시 P공과대학 출신의 유능한 과학자 박 모(某)씨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원들이 “지구 역사가 6천 년임을 지금도 고수하는지?”라고 문의하자 “자신은 종교적 신념으로 6천 년임을 믿고 싶다.”고 답변하여 청문회장이 웃음바다가 되고 결국 부적격으로 낙마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최고의 지성이라는 과학자가 그 정도이니 편협한 사고를 하는 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성인들이 우매한 민중들을 달래기 위해 일종의 방편술로 설득하는 것을 노블 라이(noble lie-성인의 거짓말; 필자의 번역 →방편술)라고 기술했습니다. 모 종교에서는 언약이니 또는 하느님이 약속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믿지 않는 것 또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주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종교인 “천도교전전”에서는 그러한 노블 라이(noble lie)라 할 수 있는 것은 『기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조금한 마음을 갖지 말라. 공을 이루는 어느 날 좋은 인연을 맺을 것이다』라는 구절과 (수운 선생의 탄數 도유심급道儒心急 편에 현기玄機는 불로不露라도 물 위심급勿爲心急하라 공성타일功成他日에 호작好作 선연仙緣 하리라) 장생長生(수운 선생이 남긴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선생주문 등)에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 장생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필자는 장생을 불교의 극락, 기독교의 천국 등으로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마치 공자가 제자들의 사후세계

를 질문받자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답변한 것처럼 아주 겸손한 표현입니다. 공자가 이상한 것 괴이한 것 등을 아주 경계한 것과 비슷합니다.

수운 선생도 자신의 주변에 이적(기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경계했었고 포덕 초기에는 영부(靈符)를 사용하여 방편술로 사용했으나 점차 청수(많은 물, 정인수) 한 그릇으로 대신하여 갑니다. 자신이 참수斬首당할 때도 청수 한 그릇으로 기도 후 순도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포천시 면암도서관에서 2025년(乙巳년) 9월 고문서古文書 연구가 김현동 辱

현동의동학(東學) 이야기

필자 소개: 김현동(金炫東, 개명 전 이름: 김윤식) 선생은 1953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대 초반에 육사 32기(1972년 입학)로 합격하였다. 폐가 나쁜 것을 숨긴 채 악을 몰래 복용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특히 구보할 때 숨쉬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육사 입학 한 달 만에 자퇴했다. 곧바로 몸을 추스릴 겸 김씨 본관의 경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어르신 한학자(漢學者)께서 동경대전(東經大全)을 권하시기에 그때부터 동학(東學)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대 중반부터 대한항공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대한항공 편으로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오가며 오전 10시에 부산 승리제단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오후 3시에는 본부 역곡제단 예배 인도를 위해 강행군하시던 조희성 총재를 어느날 필자가 공항에서 조우한 바 있는데, 그때 조희성 총재가 손바닥을 펼쳐보이면서 “내 손에 별(星)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2025년 10월 31일, 승리제단에 방문한 자리에서 필자 간증). 현재 필자는 뼈아픈 자연정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포천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뜻이 한류(韓流)와 더불어 전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1세기에 걸맞은 동학(東學)의 대부흥을 위해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